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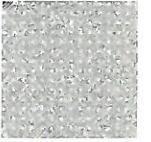
시음 주보

제2444호 2023년 4월 23일(가해)

부활 제3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비고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성모자 | 박정석 미카엘, 직경 240cm,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2020년, 에파타성당

입당송 | 시편 66(65),1-2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4.22L-33

화답송 | 시편 16(15),1-2ㄱ과 5.7-8.9-10.11(◎ 11ㄱ 참조)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 1베드 1,17-21

복음환호송 | 루카 24,32 참조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루카 24,13-35

영성체송 | 루카 24,35 참조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 사회사목국 부국장



누가 주님을 참칭(僭稱)하는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가는 내내 그동안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합류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눈이 가리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문 후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될 때에야 가리어진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읽는 그들의 종교에서, 그들이 만났다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눈은 가리어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토마스 사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상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에서 그들이 만났다는 예수님은 토마스 사도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이 다르게 부활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성체성사의 은총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들은 공생황을 하시던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체성사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합니다.

참칭(僭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참칭(僭稱)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스스로 황제나 왕이라고 일컬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과 다른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할 수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자신을 바꾼 사람들 중에 올바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느님이 그러신다면 그런 신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3년의 공생황을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유일한 공적 계시이자 마지막 공적 계시라고 교리에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한들, 설령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기적들을 체험했다고 얘기한들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참칭(僭稱)하는 이단에 불과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생길 이래 빛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듯이 주님 역시 바로 옆에 늘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전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이렇게 미처 깨닫지 못하던 빛을 우리에게 인지하게 해 줍니다. 가까운 성전에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말씀의 이삭

원목 사제와 수녀님의 협조자로서의 제 원목 활동

저는 세 곳의 사립대학 병원에서 38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2023년 2월 말 퇴임했습니다. 1985년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직을 시작하면서 직원 신자모임(성심회)에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 강남성심병원에는 원목실은 물론 원목 사제도 없던 시절이라, 병원 근처 살레시오회 신부님들이 매주 특정 요일에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조교수 시절인 1988년에 전임 회장님의 퇴임으로 성심회 회장에 선출되어 1998년 4월 인제대 백병원으로 이직할 때까지 10년간 신자 간의 친목과 예비자 교리를 통해 신심 양양에 힘썼습니다.

백병원은 성심병원과는 달리 영락교회와 주차장을 공유하는 등 개신교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 병원이었습니다. 원내에는 가톨릭 신자모임도 물론 없었습니다. 총무처를 통해 직원들의 종교 현황을 파악하니 천주교 신자가 70여명 있었고, 원내 광고를 통해 취지를 설명하자 약 25명이 모여, 성심회를 결성해 제가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직원 신자들 모임의 활성화뿐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원목 활동이 필요하여 병원 맞은편에 있던 직장사목부(현 사목국 직장사목팀)를 찾아갔습니다. 신부님께서 반갑게 맞이해주며 직원들과 환자들을 위한 매주 미사 봉헌을 흔쾌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개신교 분위기였던 병원에서 가톨릭 원목 활동이 시작되고 얼마 뒤, 천주교 원목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원목 수녀님과 원목 사제도 파견되었습니다.

강우일 주교님을 비롯해서 직장사목부 신부님들과 수도자들을 모시고 성심회 회원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원목실 개설 축하 미사를 봉헌한 지도 벌써 26년이 지났습니다. “백병원에 천주교 원목실이 생긴 것이 병원사목부가 직장사목부에서 독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는 제가 주님의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에 무한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고영초 가시미로
요셉의원 병원장

백병원에서 한창 잘 지내던 중 2005년 3월 건국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건국대학의 새 병원 완공을 앞두고 당시 병원장이었던 대학 및 고교 후배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대병원 역시 목사님이 25년 이상 상주하면서 병원 교회를 운영할 정도로 개신교가 병원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 의료원장님 등을 만나, “건대병원 규모라면 적어도 3대 종교가 함께 하는 원목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설계에도 없던 천주교 원목실이 병원 지하 4층에 마련되었고, 초대 원목 신부님으로 과달루페 수도회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2005년 10월에는 성대한 축복 미사를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2년 이상 원목 활동이 주춤했지만 올해 초 성심회 미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건국대 병원은 지난 18년 동안 6명의 원목 사제와 많은 원목 수녀님들께서 활동하셨습니다. 사제가 되려다 의사가 되어 여러 대학병원을 옮겨 다니며 직원들과 환자들의 신앙 활동을 위해 노력했으니, 이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껏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성사'

“성체는 우리를 낫게 해 줍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일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 2021년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삼종기도 강론 중-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며” !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최현순 테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그분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생물학적 기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어떤 분들에게는 걸림돌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니 불가능할 것이 무엇이겠냐 싶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 마태오복음(1,18-25)과 루카복음(2,1-7)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데다, 아마도 그 출처가 성모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것에 대해 신학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당연해 보이는 것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생각지 못한 더 깊고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도 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왜 아래로 떨어지는지 질문하지 않았다면 지구에 중력이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더 늦게 (어쨌든 누군가는 또 질문했을 테니까요) 알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는 당연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분’에 대한 신앙고백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마르코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내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오복음과 루카복음은 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걸까요? 단순히 사실이기 때문일까요?

바오로 사도의 서간문에는 ‘동정녀에게서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갈라 4,4에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느님은 당신 아들

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1세기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낳고 이름을 주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따라서 바오로 사도의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오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하는 것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이 족보에서 아들 탄생의 주체는 항상 남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이 틀이 깨집니다. “야콥은 요셉을 낳았는데, 그의 약혼자는 마리아였고 그로부터 예수가 태어났다.”(마태 1,16) 예수님의 탄생은 여성인 마리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 사랑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으로, 즉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이심, 곧 그분의 신성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수난과 돌아가심, 부활, 그리고 성령강림을 체험한 후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께서 사실은 예수님 삶의 모든 순간, 탄생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관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에 대한 고백은 제자들의 이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기적 행위 (사도 3,1-26)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기적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중훈 배우가 주연을 맡은 할렐루야(1997년 작)입니다. 주인공 덕건은 전과 3범입니다. 어느 날 덕건은 주운 지갑에서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오면 시골 교회 개척을 위한 자금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에 탐이 났던 덕건은 편지를 들고 교회를 찾아갔고, 목사 행세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내 목사의 자질을 의심받게 되고, 그때부터 기적 연기를 통해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연기에 속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그를 신뢰하게 되고 열광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결국 덕건이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은 사기였음을 밝히게 되지만, 저에게는 진정한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사도행전도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을 전해준 다음,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구자를 고쳐주는 기적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러나 루카는 이 기적 행위에서 베드로의 뛰어난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3,6)라는 베드로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현존하고 계신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구자의 치유를 통해 드러난 기쁜 소식은 베드로의 설교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설교는 치유를 설명하는 부분(12-16절)과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고(17-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구자의 치유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느님은 그분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였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무지했기(3,17)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무지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3,18) 즉 하느님께서 예고하신 것은 메시아의 영광과 세상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지했던 것은 세상의 권력 안에서 메시아의 영광만을 보면서, 희생적 사랑을 통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겠지요.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희생적 사랑을 통해 다른 누군기를 배려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중요한 기적이 아닐지 묵상해 봅니다. 만약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또다시 무지한 상태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죽음으로 몰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 시기의 유일한 화답송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Haec dies(해크 디에스)]

『미사 독서 목록 지침』은 주일과 축일의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미사에는 세 독서가 있다. 첫째 독서는 구약에서 읽고, 둘째 독서는 사도서, 곧 전례 시기에 따라 시간이나 요한 묵시록을 읽는다. 셋째 독서는 복음을 읽는다. 이러한 배치로 신구약 성경과 구원 역사의 단일성이 밝혀지고, 그 중심은 파스카 신비로 기념하는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난다.”(제66항)

그런데 부활 시기 주일에 “첫째 독서는 사도행전을 가려 뽑아 3년 동안 골고루 나누어서 배열하였다. 그리하여 초기 교회의 삶과 증거와 성장을 해마다 듣게 하였다.”(제100항)라고 설명하였고, 평일에 대해서도 역시 “첫째 독서는 주일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준연속 방법으로 읽는다.”(제101항)라고 이어집니다.

층계송이라고도 하는 화답송(Graduale)은 첫째 독서 후에 따라오는데, “신자들을 주의 깊게 가르쳐 시편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시편을 교회의 기도로 바치게”(제19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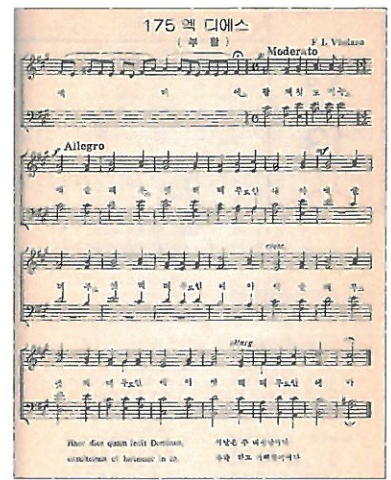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첫째 독서로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가 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이에 화답송을 노래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결국 주님 부활 대축일에 파스카 신비로 구원 업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사도 10,39-40) 그리고 시편 118(117)편을 화답송으로 노래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그리고 부활 8부 축제 기간에 동일한 화답송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

(후렴)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시편 118,24절) *(Haec dies, quam fecit Dominus, exsultemus et laetemur in ea)*

- **대축일:** “주님을 찬송하여라, 종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시편 118,1절)
- **월요일:** “이스라엘은 말하라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시편118,2절)
- **화요일:** “주님께 구원받은 이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들, 못 나라에서 모아들이신 이들은 말하여라.”(시편 107,2-3)
- **수요일:** “주님의 오른손이 드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



〈정선 가톨릭 성가집〉에 수록된 Haec dies(해크 디에스)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교수·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음악 감독

셨다.”(시편 118,16절)

- **목요일:** “집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22-23절)
- **금요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시편 118,26-27)

”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 시기에는 첫째 독서로 구약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삶과 증거와 성장을 듣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알렐루아(Alleluia)를 노래하였습니다. 즉 첫째 독서 후에도 ‘알렐루야’를 노래했고, 둘째 독서 후에도 복음환호송으로 또다른 ‘알렐루야’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
Haec dies(해크 디에스)



화답송, Haec dies(해크 디에스) 시작부분
[Graduale Triplex(그라두알레 트리플렉스) 196/8]



생각에 겹옷을 입히듯

황원옥



황원옥 마리아에스텔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가톨릭건축사사무소 대표

모진 추위와 눈바람을 견뎌낸 나무들이 조금씩 가지개를 켜더니 요즘은 정말 아름다운 초록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정화해주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도 인부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손놀림이 희망을 쌓아가는데 활기가 넘치는 요즘, 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기회를 조금이라도 허투루 쓸까 모두가 고심하면서 저마다 이루고 싶은 꿈과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바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생각과 주변 정리가 필요하지만 무한한 설렘도 품으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기쁨도 갖게 됩니다.

어릴 적 우리는 찰흙이나 수수강으로 무엇을 만들까 하는 생각에 앞서 무작정 오려보고 빚어보던 작은 동그라미들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하나씩은 지니고 있습니다.

수수강으로 가운데가 뺀 뚫린 안경을 만들어 끼고, 아무렇게나 굴러 빛은 찰흙덩이에도 뽀뽀뽀뽀 금을 그어 수박도 만들고 작은 꽃병도 만들어 가지고 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요즘은 영유아기에도 촉감 놀이나 오감 놀이를 통하여 지능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니, 무엇을 그리고 만들고 써보는 모든 행위는 완성을 향하여 걷는

인간사에 참으로 필요하고 든든한 밑받침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조각이나 만들기는 생각에 겹옷을 입히는 것과 같아서 생각을 다듬을 때 마다 겹옷의 장식이 조금씩 변하듯 매일의 삶 또한 빛는 대로 그 형상을 갖추어 나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지난 시간의 계획과 현실을 돌아보니 자국마다 손길의 흔적마다 그때의 생각들이 많이 녹아있음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지극히 소박했지만 정겹고 평화로웠던 순간들이 모여져 오늘에 이르렀음에 새삼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조각가이자 천재 화가인 미켈란젤로는 인고 끝에 자신이 조각한 모세상에 대해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안타까움과 절망이 절절하게 묻

어나는 피에타상에는 감히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니, 그만큼 작가와 작품이 혼연일체가 되어 또 다른 분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듯 생각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에는 그 표현이 서툴러 투박스런 우리 일상의 소품이나 최상의 걸작품으로 탄생된 피에타상 모두 나름의 혼이 서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인생 조각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도구로 임한다면 그때 비로소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진정한 예술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피에타 소묘



피에타 조각

최치규(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최치규(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께서 지난 4월 11일(화)에 선종하셨습니다. 최치규 신부님은 1937년 강원도 원성에서 출생하여 1963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신당동·중림동(현 중림동약현)·청파동·성북동·장안동·미아5동(현 송천동)·길동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2003년 원로사목사제가 되셨습니다. 4월 13일(목)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6년 4월 29일 봉희만 안토니오 신부(70세)
- 1993년 4월 27일 김정수 레오 신부(60세)
- 2008년 4월 24일 김택구 루도비코 신부(72세)
- 2017년 4월 27일 홍문택 베르나르도 신부(64세)
- 2021년 4월 27일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90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2023년 성소 주일 행사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1베드 2,21)를 주제로 4월 30일(주일) 오전 10시~오후 4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혜화동)에서 성소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 주차 공간이 없사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동성 중고등학교 운동장 주차 불가)
대상: 모든 신자(전체 개방) / 자세한 사항은 성소국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 참조

시작	· 신학교 개방	10시
성소 주일 미사	· 집전: 손희송 총대리 주교 · 공동집전: 염수정 추기경 외 사제단	11시~12시 운동장 야외제대
기념 행사	수도회 체험	· 수도회 성소 체험 및 홍보 부스(12개)
	신학교 체험	· 학사님을 이겨라 1: 더 세컨드 슬램덩크
		· 학사님을 이겨라 2: FC Jesus Again
		· 학사님을 이겨라 3: 피지컬 500
· 나만의 주제성구 만들기	13시30분~15시 운동장 및 대성당	
· 수단 한 번 입어보자		
카페	· 부제님의 Sugar, 성신당	13시30분~16시 필로터
공연	· UNITAS, ALMA, 수어반, 1학년 신학생 무대	15시~16시 운동장 야외무대
마침	· 폐회사 및 마침 강복	16시

교구청 알림

27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7월7일~15일(8박9일) / 문의: 010-6734-0190(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심 소화데레사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전영준 신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5월4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 집전: 김재원 신부(대만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2023년 월요 성경통독(사목국)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 조창수 신부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 의 + 미사 / 온라인 동시 강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제44회 가톨릭 에코포럼

주제: '갈수록 중요해지는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
대상: 일반신자, 수도자, 성직자 누구나 / 회비 없음
때, 곳: 4월26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강사: 테니스 오하라(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명예교수)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새 삶을 향한 참생명학교 기초과정 6기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 프로그램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 참조
때: 5월10일~6월28일 매주(수) 20시~21시30분(총 8주간)
교육방법: 온라인교육(ZOOM) / 5월3일(수) 마감
회비: 5만원 /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론연구소 설립 20주년 기념 전시회: 1~3전시실
전시일정: 4월19일(수)~27일(목)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미사

주제: 유경춘 주교
때, 곳: 5월7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주관):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4월27일(목) 19시,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빈민사목위원회 / 문의: 02)727-2427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 신자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 문의: 010-5760-6638 단장
연습 · 미사: 매주(금) 19시30분 · 둘째주(금) 20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접수안내

때	코스
5월2일(화) 오전 9시부터	1코스 말씀의 길 (명동성당~가톨릭대 성신교정)
5월13일(토) 오전 9시부터	3코스 일치의 길 (세남터 순교성지~삼성산 성지)
5월16일(화) 오전 9시부터	2코스 생명의 길 (가회동성당~당고개 순교성지)
5월24일(수) 오후 7시부터	저녁꽃 순례길 명동성당-김범우의집터-한국천주교회창립 타-좌포도청터-창경궁야간투어(~오후9시)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신청: 4월27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66차 미사 4월2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 평양교구 강서 분당, 기림리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된분당을 위한 묵주 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4월28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3) 2023 DMZ국제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때, 곳: 8월7일~11일, 강화 · 파주 · 연천 · 철원 · 접경지역 / 홈페이지 참조: <http://caminjok.or.kr>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19세~30세 청년(내 · 외국인)
회비: 10만원 / 접수: 4월28일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2)753-0815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아카데미

접수: 홈페이지(<http://seoultpcc.catholic.or.kr>) 참조
때: 4월20일~6월20일
문의: 02)727-2126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특강) 가톨릭 영성을 통한 가톨릭 믿음과 신앙활동의 다양한 문화(3주)	최대환 신부
(특강) 우리의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법(4주)	윤제연 박사
(특강) '성경의 가족들의 모든 대하는 기도이며 영성상담입니다.(4주)	김희배 우, 유지현 박사, 최현정 아나운서, 류시현 방송인
'마음을 치유하는 신앙인 글쓰기 학교'(5주)	허영엽 신부, 신달자 시인, 정호승 시인, 이지나 작가
마음수련을 위한 그림일기(4주)	김형정
미술치료(4주)	신혜영
뮤지컬(8주)	이슬
바이올린(8주)	김수연
요가(4주)	최희영
해금(8주)	정겨운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새혼 포함)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성 요셉의 삶 묵상 피정

때, 곳: 5월1일(월)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10-2724-4819 마리아학교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3박4일)
 회비: 75만원·115만원 / 문의: 010-3645-9028

화요기도 피정(파티마평화의성당)

때: 매주(화) 10시~14시(미사) / 중식 제공
 곳: 파티마 평화의 성당 / 문의: 031)952-6324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반장·구역장·레지오 단원 1일 피정

곳: 살레시오회 교육관(신길동) / 수시 접수
 문의: 02)828-3522 살레시오회 관구관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5월1일~31일 / 문의: 010-4198-7970

5월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5월5일(금)~7일(일), 명상의 집(우이동)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고 마르타 수녀

11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4667-3792

때, 곳: (금) 19시50분~22시50분, 역삼동성당(전철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 주차 가능) / 강의 기도: 이상기

평화의 모후 청년 쉼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평문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사연 피정·제주 면형의 집 피정센터

자연순례	5월12일~14일, 6월3일~5일
성지순례(추차도)	5월18일~21일, 5월27일~30일, 6월10일~13일, 6월17일~20일, 9월10일~13일

성지순례·피정과 왜관수도원 전례·탐방

출발: 서울 명동(대형 버스) /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들(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피정	5월24일~25일, 김수환 추기경 고택·한티 십자가의 길
순례	6월18일~20일(대구 17곳), 8월26일~29일(왜관·부산·마산), 10월7일~11일(울릉도·독도)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때: 6월23일~24일, 7월21일~22일, 8월25일~26일

성모소순마를 무료 치유대피정 / 문의: 010-3209-3955

성모님 품에서 값없이 먹고 자고 윈 없이 기도하자
 때: 5월12일~14일, 6월9일~11일, 7월7일~9일

예수수도회 5월 청년·3545 피정

대상: 45세 이하 미혼 여성 / 문의: 010-2314-1645
 때, 곳: 5월13일(토)~14일(일), 보은 메리워드 영성의 집
 카카오톡채널: 빛더하기_예수수도회

아씨시 수녀들과 함께하는 젊은이 해외 선교체험

때: 7월18일(화)~25일(화) 7박8일 / 선착순 10명
 곳: 인도네시아 메단공동체 / 문의: 010-5715-1702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수원 본원)

제주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때, 곳: 4월25일~27일·5월2일~4일·5월26일~28일·6월4일~6일, 성 이시들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타·추천) / 대상: 개인, 단체(구반장 맞춤 피정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4월14일~17일·5월5일~8일·5월19일~22일·6월23일~26일·7월7일~10일·7월28일~3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추천, 수용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2023년 마리아 사제운동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메시지 468번)
 미사: 서상범 주교(군종교구장)와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 강의: 이범주 신부(서울대교구 자양2동성당), 손무진 신부(대구대교구 전국대표 신부)
 때, 곳: 5월5일(금) 9시30분~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 / 문의: 02)727-2489, 010-3136-7869 천주교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제주 성 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들 목장 내 성지안에서의 쉽고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4월30일~5월2일, 5월4일~6일, 5월13일~15일, 5월22일~24일, 5월29일~31일, 6월4일~6일, 6월10일~12일, 6월18일~20일, 6월23일~25일, 7월1일~3일, 7월7일~9일 7월~8월 여름우도일정과 9월~12월 일정 접수 가능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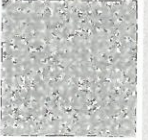
교육

미사 반주와 전례곡 등을 위한 오르간 교육

문의: 010-4964-5274 제14동작자구(혹석동)오르간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 문의: 02)727-2472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수제 목주 조각·기초부터 완성까지(가톨릭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미사반주를 위한 오르간 교육(대치2동 오르간아카데미)

곳: 대치2동성당 / 문의: 010-9468-7660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디나음악원(추천, 신촌)

음악심리상담사자격 초급반

때, 곳: 5월3일~17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내용: 특강 및 미사 / 문의: 02)753-8765
 주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때, 곳: 5월14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외국어 강좌

2023년 5월~6월 봄(Ⅱ)하기 수강생 모집
 개강: 5월2일~3일 이태리어·스페인어(주2회 2시간씩 총 30시간, 8주 과정) / 원어민을 포함한 우수 강사진, 입문~고급반 단계별 맞춤식 교육
 여행이나 순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 환영
 회비: 32만원 / 문의: 02)705-8718(http://scec.sogang.ac.kr)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상반기 금요영성특강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 B1 명례방 / 문의: 02)3147-2402

5월12일	5월19일	5월26일	기도로 매듭 풀기	박지현작가
6월16일	6월23일	6월30일	성경으로 배우는 상처와 치유	이나미교수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장학생 선발	초6~중2 총2명 / 23년 학비 50% 지원
정규입학	초5~고2 / 1년 이상
여름국제캠프	초3~중2 / 남: 시카고, 여: 보스턴

모집

남성합창단원 모집 / 문의: 010-3709-7956

베아투스남성합창단 / 모집: 각 성부 1~2명
 9월 연주회 참가(연령 제한 없음) / 오디션: 5월11일 18시

한누리아동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 문의: 02)735-3633

분야: 초등·중고 영수 지도, 모래놀이상담(요일선택 가능)
 곳: 전철 3호선 독립문역 / hannuricenter@hanmail.net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12일 / 문의: 010-9836-8998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4월26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4월27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4월25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 문의: 02)828-3522
때: 4월24일(월) 11시 / 지도: 유명일 신부
곳: 살레시오회 관구관(신길동) 4층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4월28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929-2977
때: 4월28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골롬반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4월26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가능
때, 곳: 매월 첫째주(토) 10시30분(사도의 모후)·15시(디모테오), 성바오로수도회(논현동, 북카페 레벤)

국악성가연구소 월례미사·수강생 모집

월례미사	5월1일(월) 14시	무용반	매주(금) 15시
성가반	매주(수) 14시	회비 없음, 누구나 환영	
반주장구반	매주(목) 13시30분	문의: 02)558-2004	

안내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음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임영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외수녀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가리마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 운영시간 (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성소주일 행사(예수의 가리마스 수녀회 서울관구)
"주님의 집에 가지 할 때 우리는 몹시 기뻐노라"
(시편 122) 초대합니다 / 대상: 중고생, 청년(남녀)
때, 곳: 4월30일(일) 10시~16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 문의: 010-5830-3217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마텔암재단강화센터 이용 안내
문의: 010-3355-1946, 032)937-7530

입원자 3박4일 무료 피정	(월~목)
입원자 보호자 4박5일 무료침터 제공	(월~금)

가톨릭여성연합회 4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박준양 신부(레지오마리아에서올세나투스 담당)
때, 곳: 4월25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분석심리학과와 산책·읽어버린, 잊혀진, 묻혀있는 나의 인격들과의 만남
집단형태: 반구조화 대면 소집단 수업
돕는이: 김영희(융학파분석가, 경기대 명예교수)
때: 5월9일~6월12일 매주(화) 14시~16시30분(5주)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 봉헌(명절·위령의날), 매일 1회 추모와 축복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유관단체 알림

자녀신앙 상담전화(햇살사목센터)
대상: (손)자녀의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조부모
문의(상담전화): 02)744-0841 (일·(월) 12시~1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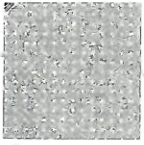
직원모집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분야: 고객지원팀, 활동운영팀
업무: 사무행정, 청소년활동 지도 /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화곡2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2065-3821
대상: 신자로 시설물 관리, 영선, 미화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7782,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32길 19) 및 이메일(hssaint@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메리놀 수녀회	4월29일(토)·수시	수녀원(가양동)	010-9585-1912 성미영 수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4월29일(토)~30일(일)	본원(원주)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한국외방선교회	5월7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

미하일 센마르토니 지음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325쪽 | 1만8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영성심리학적 방법론을 통해, 영적 성장으로 안내하는 회심, 수덕, 절정 체험, 은사 체험, 한계 체험, 신비 체험의 여섯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영적 성숙과 인격의 성장이 완벽히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신간
구산의 별꽃

김관속 지음
성바오로 | 320쪽 | 1만8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성 김성우 안토니오는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시성한 한국 성인 103명 중 한 명이다. 이 책은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과 그 일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순교 소설이다.



디지털 앨범
가톨릭성가 부활

성바오로딸수도회
바로로딸뮤직 | 38분 58초
문의: 02)944-0944

바로로딸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가톨릭합창단이 부른 500여 곡의 가톨릭성가를 총 21개의 시디(CD)와 테이프(Tape)로 이미 선보인 바 있다. <가톨릭성가 부활>은 그 가운데 부활 성가들을 따로 모아 디지털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발매한 것이다.



음악회
**명동대성당 상반기
한낮 음악회**

전석초대
문의: 02)774-1784

2023년 <명동대성당 한낮 음악회>가 5월 9일~30일 매주(화) 12시 30분에 열린다. 부활, 성령강림, 성모성월, 삼일절 주제곡의 오르간 곡을 명동대성당의 4인의 오르가니스트 강다영, 김은영, 박준병, 최주용이 연주한다.

신앙의 동반자 **가톨릭 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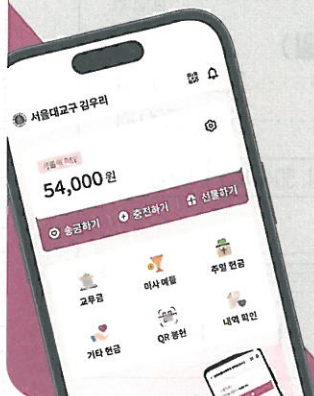
한국 천주교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해 헌신하고 순교하신 정하상 바오로의 굳은 신앙을 본받아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길잡이**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 **가톨릭페이(Catholic Pay)**

- 교 무 금 | 책정은 교적 본당에서 하시고, 납부는 가톨릭페이로 하세요.
- 미 사 예 물 | 페이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성당의 미사에 지향을 접수할 수 있어요. (최소 3일 전에 신청)
- 주 일 헌 금 | 현금이 없어도 쿠파(QR)를 통해 미사 중에 봉헌금을 낼 수 있어요.
- 기 타 헌 금 |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기부금도 항목별로 납부 가능해요.

* **가톨릭페이를 사용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 1 주일 헌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2 모든 봉헌 내역을 본당 사무실 방문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 3 오픈 बैं킹을 통해 사용하시는 계좌로 등록하여 봉헌할 수 있어요!



가톨릭 하상 다운로드 →

제2277(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의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성모의 밤

일시 : 5월 13일(토) 오후 8시 / 대성전

준비물 : 묵주

초(성당 마당에서 판매)

※ 꽃을 봉헌하실 개인 또는 단체는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소 주일 행사 관계로 4월 29일(토)

오후 3시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2월~4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김한라	안나	1-1	이현숙	스텔라	1-1
임동열	베네딕토	5-1	송은혜	세실리아	6-5
황현호	사도요한	8-2	김슬기	아베스	9-4
이민우	리노	11-3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4월 23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레지오 전단원 교육

일시 : 4월 23일(주일) 오후 1시 10분 / 대성전

강사 : 서울 세나투스 박준양 세례자요한 지도신부

◎ 여성 울뜨레야

일시 : 4월 25일(화) 10시 미사 후 304호

◎ 대건회(60대) 정기모임

일시 : 4월 27일(목) 오후 7시 / 201호

문의 : 박병근 세례자요한 회장 (010-8293-8666)

◎ 병자영성체

일시 : 4월 28일(금) 10시 미사 후

◎ 연령회 미사

일시 : 5월 2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선종하신분들을 위한 미사)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5월 6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5월 7일(주일) 오후 4시 30분

◎ 문화학교 선생님 모집

과목 : 미술, 공예(비즈, 클레이)

문의 : 플로라 (010-5471-2416)

◎ 사무실 휴무 안내

5월 5일(금)

※ 미사 지향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초등부 주일학교 보조 반주자 모집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의 반주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습 및 미사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청년 전례단

20 예그리나 / 30 프리모 신입단원 모집

문의 : 전례단장 (010-9526-3217)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4. 1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65	720 (34.8%)	677 (32.8%)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4월 10일~16일)

강영자 일십만원	손은지 일십만원
조 윤 일십만원	송명자 일십만원
익 명 이십오만원	강경탁 오십만원
한숙희 일십만원	조세빈 일십만원
함영동 일만원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2주일)

교 무 금..... 7,295,000원

주일헌금..... 6,199,500원

입당	129	봉헌	510,219,342	성체	44,504,166	파견	130
----	-----	----	-------------	----	------------	----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